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제주시오라동단체장협의회장

시민의 사회적 역할에 단체(조직)의 '수장(首長)'과 '구성원'이 있다. 수장은 단체를 이끌어갈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우두머리다. 사전에 의하면 수장은 '위에서 중심이 되어 집단이나 단체를 지배·통솔하는 사람'이다. '지배'와 '통솔'은 '다스림'과 함께 각각 '복종하게 함'과 '거느림'의 뜻을 갖고 있다. 건전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단체의 '수장'으로서 민주적인 역할이 중시되는 요즘의 경향으로 보면 이는 거리가 있는 해석이다. 수장은 조직이나 단체를 소유한

이 시대의 주인 의식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그 구성원이다. 수장이 이를 잊으면 종종 '권한의 사유화'로 나타난다. 이는 구성원을 무시하는 독주와 제 맘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전횡으로 발전한다. 수장이 맡은 소임은 그 단체의 목적과 규정, 그리고 구성원의 뜻을 대리해 수행하는 심부름일 뿐이다. 이 소임도 오래 주어지는 게 아니다. 삶의 어느 시기에 스쳐 지나가듯 임시로 위임받은 권한이고 역할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수장은 그 직을 자기 과시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책임 기간 동안 소속된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자신의 최종·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지난 1월 31일 자, 모 중앙 일간지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년마다 시행하는 '국내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018년에 5위에 그쳤던 '책임 의식'이 올해 1위로 올라왔다고 한다. '도전정신'과 '소통·협력', '창의성', '열정' 등 앞에 있던 모두를 제쳤다. 2위였던 '전문성'은 6위로 밀려났다. 이를 다른 논설은 이렇게 글을 맺고 있다. "내가 주인"이라는 자세로 일하는 것은 기업을 위한다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앞으로 발굴, 투자하고 키워갈 미래 인재는 찾는 기준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전에 기업의 중견 직위 이상에서 주로 보이거나 요구되던 '책임 의식'이 신입사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은 조직이나 단체의 수장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갖춰야 할 덕목이다. 수장은

단체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주인 의식을 갖추고 구성원은 맡은 바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단체와 조직은 큰 규모로도 존재하지만 그 안의 부서와 팀, 사적 모임 등 단계나 단위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위기 마련이다. 구성원이 있으면 거기서 대표의 역할을 하는 자가 수장이다. 수장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주인 의식을 가져야 그 조직이 건강해진다. 수장의 주인 의식은 그 소임이 클수록 더 중요하고 구성원의 책임 의식은 그 조직의 바른 성장에 꼭 필요하다. 지금은 권한에만 요구되던 책임이 사소한 자격에도 부여되고 있는 시대다. '주인 의식'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나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설

자연재해 대응, 통상적 방식으로 안된다

자연재해가 무섭고 두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일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막대한 재산의 손실까지 초래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는 예측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제주도는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5개 사업, 25개 지구에 798억원을 들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선 전에 재해 우려 구간은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민안전건강실장을 단장으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꾸리고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는 지난해 지구촌 곳곳에서 겪은 자연재해를 지켜봤다. 미국 콜로라도강과 중국 장강은 극심한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났다. 파키스탄은 역대 최악의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고통을 앓았다. 남의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슈퍼태풍 '힌남노'가 덮치면서 많은 피해를 불렀다. 제주지역은 '하늘이 뚫렸다'고 할 정도로 1년 내릴 양에 맞먹는 1059mm의 비가 쏟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갈수록 사나워지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통상적인 수준으로 자연재해에 대처해선 어렵다. 자연재해가 예기치 않게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치밀하게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꾸

열린마당

서귀포시4-H 회장을 맡으며



고성봉 (사)서귀포시4-H본부 회장

필자는 지난 2000년 한국4-H중앙연합회장을 역임하는 기간에 한국4-H후원회와 한국4-H연맹, 한국클로버동지회가 통합해 한국4-H본부가 태동하며 4-H의 통합기구가 탄생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7대 서귀포시4-H본부 회장을 맡아 2년간 4-H운동을 펼쳐나갔다. 처음의 통합 목적에 맞게 기관, 기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나가며 학교4-H 육성을 위한 과제교육 물자를 지원해 나갔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근대 농촌문화의 역사성을 갖는 4-H표지석을 찾아내고 이를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에 신청해 총 30기를 미래문화자산으로 선정 시키기도 했다. 또한 미래문화자산으로 선정된 4-H표지석과 유적 등을 연결시켜 191km 구간을 서귀포시 '4-H농촌문화유적길'을 조성해 농촌문화교육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 남제주군4-H의 역사자료들을 정리해 서귀포시4-H운 동 역사자료집을 편찬했다. 이제 회장을 끝마치는 마음을 담아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 제주의 읍면지역에는 역사성, 향토성을 갖는 4-H회관과 농촌주제 지소 건물 등이 일부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 문화가 있는 건물을 읍면별 농촌문화 역사박물관으로 조성했으면 한다. 그리고 농촌문화유적길 코스와 연결해 교육 장소로 만들어 나가는 제안을 한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4-H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피력해 본다.

뉴스-in

'15분도시 제주' 1년 동안 홍보만...

'15분도시' 수행 업무 부족 "3밀 환경선 마스크 착용을" ○...제주자치도가 이달 초 제주 특성에 맞는 15분도시 제주 체계 구축을 위해 '15분도시'를 신설했으나 기본 구상이나 제주 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내용 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직원들은 홍보 등 기본 업무만 수행 중. 제주자치도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는 내년 2월쯤 15분도시 제주 조성 방안을 담은 용역이 나와야 15분도시 제주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 사업의 시행 관리 업무, 생활권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는 15분도시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2월에 용역이 나오면 본격적인 업무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언급. **고대리기자**

감염병 발원지 오명 벗을 대책 서둘러야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간 인공의 세월을 보냈다.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점차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코로나 종식은 요원하다. 이 가운데 이름도 생소한 레지오넬라균이 제주에서 폭증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린다. 레지오넬라균은 물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다 른 질병에 의해 면역력이 매우 약화된 환자의 경우 질환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에서는 최근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확진자가 사망해 보건당국이 평소 기저질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매해 1~7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2020년 19명, 2021년 40명, 2022년 46명으로 최근 몇 년 새 큰 폭으로 늘었다. 사망 사례도 2009년 처음 발생한 이후 2020년부터는 4년 연속 발생했다. 특히 제주지역 감염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8배나 높다. 청정 제주가 아니라 감염병 발원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레지오넬라균은 운수기, 가슴기 등에 서식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운수기, 가슴기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건물의 냉각탑은 청소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또 보건당국은 제주지역 감염률이 왜 유독 높은 원인을 진단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레지오넬라균 예방에 대한 대도민 홍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고 김순철(前 농협중앙회 지점장) 어머니 양천하씨 향년(향년 97세)께서 서기 2023년 2월 7일 낮 12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3년 2월 8일(수요일) ▶발인일시: 2023년 2월 9일(목요일) 오전 6시 50분 ▶장례미사: 서귀포성당 7시 30분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모슬포 선영 아 들 김순철 며느리 오애순 순관 완석 정행숙 딸 김춘희 인선 사 위 김홍을 미정 양성수 ※ 연락처 : 김순철 010-9898-7277 김순관 010-2689-7449 김완석 010-3579-0161 김춘희 010-3119-4163 김인선 010-3692-8263 양성수 010-8020-2251 김미정 010-4692-2251

차고지/주차장 市の 자기차고지갯기사업 *市 지원 90%*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자기차고지갯기사업* No.1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리수/하자보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백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항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중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비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펜션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